



202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 행사명: 202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 일 시: 2024. 5. 16(목) 16:30-17:30
- 장 소: 공영쇼핑 본사 17층 대회의실
- 속기록작성 : 한채영속기사무소 

(주) 공 영 쇼 핑

속 기록 개요

회의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6:30
회의장소	공영홈쇼핑 본사 17층 교육장
회의주제	202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사업본부 본부장 (이종원) 성혜영 (방송기획팀 팀장) 이명희 (방송기획팀 대리) 류건 (방송기획팀 과장) 김동환 (미디어실 실장) 정봉식 (CCM실 실장) 장희석 (상품개발 2실 실장) 심인창 (마케팅실 실장) 김병규 (농산팀 팀장) 전상운 (수산팀 팀장) 박진옥 (생활문화팀 팀장 - 상품개발 1실 실장 대리 참석) 남기중 (패션뷰티팀장) 박창희(시청자위원장) 김윤자(시청자부위원장) 조선행(시청자위원) 이성우(시청자위원) 김선미(시청자위원) 이순행(시청자위원) 송준호(시청자위원) 이진한(시청자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속기록은 속기사의 허락 없이 정정할 수 없음.▶ ‘ ... ’ 은 청취 불능임.▶ (...)기호는 속기사의 상황설명임▶ (..)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부연설명임
	<p>본 속기록은 의뢰한 원본(녹음)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p> <p>한채영속기사무소 </p> <p>연락처: 010-3175-9649 <등록번호 : 504-31-47928></p>

○ 방송기획팀장 (성혜영)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시청자위원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개회선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희)

지금부터 5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아침부터 춥던데, 완전한 초여름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5월 시청자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 방송기획팀장 (성혜영)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공영홈쇼핑에서 위원님 8명, 경영진 7명, 경영진 외 6명.

총 21명 참석했습니다.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방송편성 관련 2건, 방송 프로그램 관련 10건. 전체 12건.

사업자가 12건 다 수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품정보와 구성, 가격, 시연과 쇼호스트 멘트 그리고 편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12건 모두 수용해서 개선 약속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공유해 드린 조치경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월 모니터링 의견 나누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먼저 오늘 세 분이 사정상 결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윤자 위원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성우 위원님부터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저는 이달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공영홈쇼핑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공영홈쇼핑에 대한 훈훈한 미담 소식이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일날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기부한 것도 있고, 지난주에는 사랑의 쌀을 한국사회복지협 전국푸드뱅크를 통해서 30톤 기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마포구 후원자 감사의 날 때 구청장 표창을 받은 거랑 대한적십자회에서 회원유공자 명예회장상을 받은 일

등 훈훈한 미담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5월 달 한국기업평판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전국의 공공기관 소통이나 참여 소셜같이 다양한 가치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브랜드 평판에 대한 순위를 매깁니다. 중소벤처기업도 산하에서 공영홈쇼핑이 5월 달에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3위가 기술보증기금인데, 공영홈쇼핑이 소통이나 소셜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언론에 잘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 잘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응원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방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8일 오후 9시 40분경에 제가 봤던 <이효진 LA갈비구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문구가 하나 딱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개류 등 제조시설에서 제조라는 문구가 들었는데, 이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조개류 등 어패류 상품을 생산한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이 잘 돼 있는 걸 의미하는 건가. 어패류 생산하는 시설에서 왜 갈비구이를 제조를 할까 의문이 들어서 의견 하나 남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 8mm 두께의 먹기 좋게 손질'이라는 문구가 자주 노출이 됐습니다. 상품에. 노출되는 와중에 쇼핑호스트가 고기마다 어떤 고기는 굵고, 얇을 수도 있지만 전체 총량은 4kg이라고 언급을 자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특성상 크거나 굵기가 균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시키려는 쇼핑호스트의 모습이 고객 배려 차원에서 좋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뼈 포함 원육 함량 60% 배합, 조리 전 그다음에 원육만 2.4kg이라는 문구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기 함량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표기 노출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0% 나머지 함량이 무엇일까. 개인적인 추측은 소스일 것 같은데, 방송 중에 소스는 20%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가 어떤 건지. 소스의 부재료가 뭘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이나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전체 비중 대비 60%만 뼈 포함 고기라고 소개가 됐는데, 이 정도 60%가 고기의 비중이라고 했을 때 4kg 대비 2.4kg. 비중이 적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객의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남겨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청자위원이기 때문에 공영쇼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

서 좋은 소식 전달해 주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본 겁니다.

그런데 저는 2번, 3번은 그렇고 처음에 조개류 상품을 생산한 시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침 궁금했는데, 이성우 위원님께서 모니터링을 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조선행 위원

조선행입니다.

저는 5월 5일 저녁 6시 40분쯤 교원투어에서 주관하는 <장강삼협크루즈 (교원투어)>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공영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홈쇼핑에서도 요즘 여행방송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그다음에 저녁시간대, 휴일 전날 이런 때 여행상품을 많이 안내하는 것 같고요. 공영쇼핑에서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 <장강삼협크루즈>는 교원투어에서 진행하고, 공영쇼핑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159만 원 한 가격으로 4박 5일 크루즈여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5성 호텔이라고 하지 않았고, 5성급 호텔에서 하루 자고, 5성급 크루즈에서 3연박을 한다고 했고, 전 일정 식사를 제공합니다.

기내식과 호텔식과 선상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 여행을 하면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편한 데서 잠자고 이러면 여행의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방송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어떤 거였냐면 현지식과 특식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선상식은... 제가 크루즈여행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선상식은 뷔페인 건지 어떤 건지 이런 설명들이 한 번도 없어서 그게 조금 궁금해서 홈페이지도 막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도 그런 설명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을 안 해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감사합니다.

혹시 자료화면에 소개되거나 쇼호스트들이 얘기를 안 했나요?

○ 조선행 위원

없었어요. 아니, 뷔페식으로 짝 차려진 거는 나왔어요. 나머지 식사가 다 그렇게 먹나

요?

○ 위원장 (박창희)

대개 그렇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따로 설명을 안 했으면 위원님 보시기에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윤자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5월 8일 1시 40분 <영광법성포 굴비 특장대> 방송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날 보면서 일단은 법성포 굴비가 크기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하루 5월 8일 하루 편성된 23개 판매상품을 전부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판매상품이 식품이 15개였는데요. <영광법성포 굴비 특장대>의 경우에 다른 상품에 비해서 구매 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날 식품 판매들이 대략 판매 수가 잘 나오는 것도 있었고, 거의 구매 수가 5,000이 넘는 정도였고. 같은 수산물인 고등어나 갈치 같은 경우에도 구매 수가 높았는데, 이 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g의 경우에는 1,686개가 구매자가 있었고요. 70g의 경우에 1,472개밖에 구매가 안 되어서 그날 보면서 이게 왜 구매 수가 적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해 봤는데, 그날 화면에서 봤을 때도 굴비의 크기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80g, 70g 경우도 대비를 해 보면 70g이 80g보다 구매 수가 더 낮잖아요. 그래서 굴비 사이즈가 특장대라고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구매율이 낮은 것 아닌가. 제가 구매자의 입장에서 굴비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생선이기는 하지만, 너무 크기가 작으면 대가리나 뼈 이런 거를 다 제하고 나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크기가 작으면 구매욕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왜 적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영쇼핑이 이런 식품 판매가 상대적으로 구매 수가 높은 것은 공영쇼핑의 목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식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구매 수를 높이려면 상품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도 좋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참조기는 큰 거는 보기 힘들고, 귀하잖아요. 너무 작은 거를 잡아서.

이것은 공영쇼핑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판매처에서 너무 작은 조기는 잡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은 판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김윤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크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날 김윤자 위원님께서 23개 상품 중 15개 식품이었다고 하는데, 구매 수량이 제일 낮다고 하신 거죠?

가격이 비싸서 아닙니까? 혹시 가격 때문 아닙니까?

○ 김윤자 위원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일 멀리 계시는 김선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김선미 위원

첫 번째 말씀드릴 상품은 4월 22일 오후 1시 40분에 방송된 <에어리 트렌치 자켓>입니다.

쇼호스트 상품설명 중에서 “개인적으로 2개 정도 주문해서 맞는 거 입어보고, 아닌 것 하나 반품하세요.”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쇼핑 팁을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쇼핑의 설립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멘트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4월 16일 <여수돌산갓김치>와 4월 24일에 방송된 <스트릿 윈드점퍼> 상품 설명 중에 맞춤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갓김치 설명 중에서는 ‘갓 담귀 보내드려요.’ 담귀가 아니고, 담가이고요.

<스트릿 윈드점퍼> 상품설명에서는 “엄청 가볍게 입을 수 있어요.” 엄청이 아니고, ‘엄침나게’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실 엄청 같은 경우에는 엄청으로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엄침나게’가 맞는 표현이고, 방송 중에는 맞춤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어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화면에 지나갈 텍스트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반품하세요.”라고 써놓은 건 아마 마음 들면 사라, 마라 이렇게 좋게 보면 선택권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순행 위원님.

○ 이순행 위원

저는 4월 23일 오후 8시 40분과 4월 27일 오전 9시 25분에 방송된 <이경제 흑염소 진액> 240포짜리 방송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8박스에 240포 318,000원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제 원장님이 직접 출연하여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처음 접하였을 때 흑염소진액 240포인데, 가격이 꽤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계속 집중해서 방송을 보다 보니 두 가지가 소비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합추출액 100%라는 제품 성분에 대한 강조입니다.

방송 중에 '혼합추출액이 70%, 80%도 아닌 무려 100%.' '정말 귀하고, 정말 진한 거구나.' 등 흑염소 추출물이 100%임을 강조해 주고, 영상자료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진하고 귀하다, 100%'라는 표현이 좋은 성분, 흑염소가 가득 짫다는 느낌을 주는데, 정작 흑염소는 2.6%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흑염소가 2.6% 들어있다는 것은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을 뿐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액이라는 제품 이름입니다.

진액이라는 제품 이름과 흑염소 2.6%의 성분은 매칭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사 제품은 어떤지 찾아보니 가격대가 있으나 흑염소 성분이 보통 17%에서 50% 함유되어 있었고요. 2.6%라면 흑염소진액이 아닌 부원료가 오히려 많이 포함되어 있는 흑염소액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액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6%라는 함량 흑염소진액을 240포 8개월 동안 먹을 것인지, 함량이 높은 진액을 90포 정도 3개월 먹을 것이지는 소비자가 선택하겠지만, 지난 시청자위원회 때 윤금선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과 양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좀 고려해서 제품생산을 선택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경제 흑염소는 아니지만, 저도 아침에 흑염소 먹고 왔습니다. 저는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면서 방송을 돌려보니까 이경제 원장님이 전 채널을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흑염소에 대해서는.

○ 이순행 위원

보니까 타 방송에도 나오시더라고요.

○ 위원장 (박창희)

아니, 동시에 나올 때도 있고 좀 지나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데 증거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광고를 많이 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순행 위원

저도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저렴하고 싸다, 좋다 이렇게 봤는데, 모니터링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봤거든요. 텍스트도 보고 그러면서 다른 데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나중에 팀장님께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준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 송준호 위원

24년 5월 7일 1시 40분에 방송된 제품입니다.

<멧돌로 갈아만든 국산콩 찐콩물> 판매였습니다.

콩물이기 때문에 콩을 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허받은 멧돌방식이라고 해서 가는 방식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멧돌방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뢰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히 특허 받았다는 부분이 소구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멧돌방식은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같았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설명을 할 겸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100% 국산콩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소금이 조금 들었다, 물론 당연히 소금이 들어야지 간이 되니까 소금이 들어갔다는 말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100% 국산콩을 강조를 하면서 소금이 들었다고 한다면 콩의 원료가 100%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분에 있어서도 소금이 조금 들어갔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 줬다고 한다면 헛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호라산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호라산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구나했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준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종류 특허인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 송준호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이진한 위원

공영방송에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칭찬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몰랐네요. 이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상 어린이환자 의료지원 이런 거는 좋은 일이고, 저한테도 자료 주시면 자료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제 한의사. 스타의사들. 소위 말해서 얼굴은 많이 알려져 있고, 자기네 이름으로 제품 판매하는 거에 대한 의협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될 것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과연 그분이 직접 만든 건지. 그 브랜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한의사계 쪽에서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 걸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런 거도 좀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경희 원터치 슬림 스팀 청소기> 여러 개를 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관심 많았던 그런 거라서요.

예전에 스팀청소기 써봤는데,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거든요.

가볍다고 해서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것처럼 한 손으로 들다가 갑자기 화면 중에 두 손 들고 있는 거 보고 '가벼운 거 맞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화면 캡처해서 본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스팀청소기를 부모님이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아이들 침구류의 아토피나 진드기들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진드기를 살균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훨씬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쓸 수 있다는 니즈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거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균이라서 이거 가지고 뭔가 스팀의 어떤 효과를 말하기에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팀청소기의 가장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사용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집안에서 쓰면 결국 장판이 손상이 많이 되는 거. 그다음에 물통의 손잡이가 사실 무거운데, 어느 정도 무거운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살짝 스치기만 했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스팀의 연기가 짝 나는, 열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손대면 뜨겁고, 화상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구를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확실히 의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봤지만, 한 손에 가볍다고 했다가 두 손으로 하는 거 보면 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분례명인육수분>은 다른 위원님도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은 25가지 원료를 사용하여 육수분을 잘 만들고, 감칠맛이 난다,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 재료 중에 동결하는 방식, 진공 방식, 열풍건조 방식에 따라서 3가지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렇게 해 놓고 디스플레이된 재연화면에 25가지 재료를 그냥 쭉 분산시켜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지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쇼호스트 멘트나 아니면 문자로 보여줬으면 조금 더 좋은 정보로서 소비자들에게 유익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만능육수분>이 시연요리할 때 어떤 거는 1포, 어떤 거는 2포를 넣습니다. 물론 양이 많으면 2포를 넣고, 적으면 1포를 넣겠지만 서분례 명인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쇼호스트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파바빈프로틴쉐이크>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다른 곡물과 파바빈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해 놓고, 파바빈 100g에 뭐가 들어있다고 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비교하는 식약청의 자료를 보면 100g 제품 원물에 대한 기준이지, 곡물을 합친 100g이 아니라 본 제품과 동일하지 않음을 표시는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영쇼핑 단백질 제품 중 유일, 유당 걱정 없음’ 이런 문자가 몇 분마다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를 몰라서 혹시 우리 팀장님들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소비자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굉장히 빠르게 한 10분 절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산팀장 (김병규)

농산팀 김병규입니다.

이순행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경제 흑염소진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충분한 이런 노출이 고객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고. 레시피, 성분을 배합하고, 개발하는 분이 이경제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혼합추출액과 실제 흑염소 성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사실 모든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오인을 막기 위해서 흑염소 함량 2.6%를 함께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혼합추출액으로 중간 원료를, 원재료 함량을 별도 성분으로 이렇게 지금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추출액이 100%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저희가 오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액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상품은 흑염소 육골을 통째로 22가지 전통 원료를 넣고, 48시간 장시간 추출을 했습니다. <이경제 흑염소진액>이라는 이 자체가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브랜드명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때 전통원료 가시오가피나 감초, 작약 뿌리, 쑥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고 있고요. 원료 설명 시에는 저희가 추출액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인 없도록 협력사랑 방송 노출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팀장님, 잠깐만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진짜 <이경제 흑염소진액> 저게 제일 좋아요? MD들이 다 선별해서 하셨을 텐데, 흑염소가 많잖아요.

○ 농산팀장 (김병규)

다른 사에서 노출은 저희도 포함해서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계속해서 재구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멧돌로 갈아만든 국산콩 찐콩물>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 제품을 멧돌로 간 게 아니고, 멧돌시스템으로 제조한다는 특허입니다. 그런데 이게 멧돌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멧돌방식으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멧돌시스템이 어떤 건지, 어떻게 멧돌방식으로 갈아서 이 제품을 만드는지 고민해서 추후에 설명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국산콩 멘트를 하다 보니까 국산콩만 들어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콩은 국내산을 쓴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정말 콩과 소금 이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산밀은 저희가 다시 방송을 돌려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분례명인육수분> 관련해서 의견주셨습니다.

이게 동결, 진공, 열풍 각각의 건조 방식 혹은 각 원료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방식을 구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치 같은 경우는 열풍을 하면 건조가 되거나 타기 때문에 진공으로 해서 맛을 있는 그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말로 만들고 있는데,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정리를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포, 2포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명히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물요리 같은 비빔에는 분이 잘 녹으니까 1포를 넣고, 양이 많은 국물 요리에는 2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도 사용법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바빈프로틴쉐이크> 의견주셨습니다.

이게 100g 제품이 아니고, 파바빈 원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도 혼동이 없도록 노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파바빈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부르는 이름으로는 잠두라고 하는 콩입니다.

이 콩이 장두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유 계통에 들어가 있는 유당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유당에 대해서 소화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동 없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팀장 (전상운)

김윤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영광법성포 굴비 특장대>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셨던 5월 8일자 방송에는 주로 저희가 판매했던 메인코드 상품은 80g에 20미, 59,900원 상품이 주요 표기였고요. 저희가 ETV코드나 동시 노출 코드로 70g 30미를 동일한 가격에 노출해서 판매하였습니다.

주요한 고객님들의 방송용에 판매한 코드는 80g으로 보시면 되는데, 굴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공영 자사에 사이즈 표기하는 기준 가이드를 갖고 있고, 그 가이드에 의거해서 사이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기준은 중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0g 짜리를 저희가 특장대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구매 수가 특장대 사이즈가 맞고요. 특대장대라고 해서 90g 이상의 중량의 사이즈를 별도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는데, 명절 때 선물용 수요로 고중량을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대중적으로 국민어종의 반찬상품으로 판매를 하기에는 80g 특장대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상품 중심으로 노출을 합시다마는 프리미엄 상품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는 특대장대 상품도 동시 노출할 수 있게끔 물량 준비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g 정도의 작은 사이즈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기 있는 g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기 사이즈인데, 어업민들을 돕고자하는 차원에서 메인 상품이 아닌 동

시 노출 코드로 같이 노출하는 부분은 저희 공영쇼핑의 취지상 지원 차원에서 노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많이 노출할 수 있게 재고 많이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희)

그래도 300개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전략적으로 70g과 80g이.

○ 수산팀장 (전상운)

아무래도 저 수량은 온라인상 노출되어 있는 주문수량으로 보신 것 같고요. 저희가 80g은 보통 2,000~3,000세트 정도.

○ 위원장 (박찬희)

그러니까 80g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 수산팀장 (전상운)

네.

○ 위원장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 상품개발2실장 (장희석)

상품개발2실 장희석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이효진 LA갈비구이> 이성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개류 등 상품을 생산한 시설에서 제조라는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개류 등을 생산한 시설에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그 광고법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 닭고기, 호두 이런 물질이 들어간 식품이나 아니면 이런 물질이 들어간 상품을 생산한 시설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류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이 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한 겁니다.

두 번째로 뼈 포함 원육 함량이 60%, 소스가 20%고 나머지 20%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셨는데, 나머지는 20%는 정제수입니다. 물입니다.

소스가 굉장히 되직하다 보니까 그걸 희석하는 차원에서 물을 넣어서 소스를 같이 함유해서 버무리기 때문에 20%는 물인데, 정제수는 표시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별도의 표시는 없었습니다. 차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디테일하게 다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비중의 60%만 빼 포함 고기라면 조금 적다고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단순 신선육, 원육만이 아니라 양념육이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스가 들어가는 비율이 차이합니다. 말 그대로 소스 20, 정제수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 함량이 적어 보이는데, 양념육 자체로 표시사항을 준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불만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5월 4일 <특산 백세 삼계탕> 윤금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삼계탕 재료를 설명할 때 닭의 항문과 날개 부분을 노출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추후에 편집할 때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림닭의 5호분을 사용한다는데, 닭의 불순물과 제거 분량 부분도 표시를 하거나 멘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닭의 비 가식 부위가 꼬리 꼬지 쪽에 있는 지방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조업체에서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삼계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가식 부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방송에서 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호 닭을 사올 때는 전체 비 가식 부위가 모든 걸 포함한 그런 닭을 사와서 제조업체들이 비 가식 부위를 절단하고 그렇게 해서 삼계탕을 만들고 있는데, 닭날개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제거하지 않고, 항문 쪽 꼬지 쪽 지방 많은 부분만 주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문화팀 (박진옥)

안녕하세요? 생활문화팀입니다

<장강삼협크루즈(교원투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선상식으로만 표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심의규정상 크루즈 배 위에서 진행되는 식사는 선상식이라고 일단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끼 다 뷔페로 진행되고 있어서 영상으로만 소거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방송할 때는 선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자막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희 원터치 슬림 스팀청소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기 무게가 2.2kg로 가볍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물통

같은 경우도 330mm로 물통 꽉 채워도 2.7kg로 타사 나와 있는 제품보다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슬림한 청소기로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상품방송 중에 대중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을 99.9% 살균할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성적서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KC의 성적서 기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빈대는 60도 이상 고온에서 다 박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성적서가 없어서 표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추후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면 보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이 손상되는 부분과 스팀 열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제품이 30초면 예열이 되고 100°C 고열로 나오는 제품이 맞습니다.

추후 방송할 때는 열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나 장판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 패션뷰티팀장 (남기준)

저는 서인환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내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상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중 모바일 화면에는 사이즈별, 킹이나 슈퍼킹 이런 식으로 사이즈 별 코드가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상품을 클릭해서 그렇게 되면 원하는 색상의 옵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거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송 최저가는 당사 공영쇼핑의 단독 아이템이고요. 이 공영방송에서 최저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문의하신 상품은 아라벨르 브랜드 60수 아사 침구 풀세트거든요. 23년 작년에 판매했던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중에서 최고 큰 사이즈가 109,900원에 가격 인하 없이 진행을 했던 상품인데, 말씀해 주신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이력, 할인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당사 기준이 아닌 스마트쇼핑이나 제휴 사이트 등에서 할인쿠폰 적용가를 확인하신 게 아닐까 판단합니다.

제휴사이트 외에 당사 프로모션이 적용된 부분은 저희가 방송 전에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구매하시는데, 혼동 없도록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앤드로제 에어리 트렌치 자켓>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방송 미팅

때 부담되지 않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맞춤법 경우도 ‘엄청나게’ 맞춤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너무 꼼꼼하게 많은 시간 들여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들, 위원님들 의견에 일일이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송사 PD나 MD보다 훨씬 더 수고스럽고, 전문가이고, 어렵다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지만, 계속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초여름 날씨라고 그랬는데,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큼니다.

어제는 강원도에 눈이 왔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6월 시청자 위원회에서 모두 무사히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5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